

2) 성골(星谷) 버릿골마을

뒷산 벼랑에 돌이 별처럼 뽕족한 것이 많다 하여 부르게 된 이름으로 지금도 ‘꼴’이라 부르고 있다.

3) 태봉(胎峯)

마을의 서쪽에 있는 신래봉(辛來峰)[일명 胎山]에 있는 태실은 조선 성종의 아들 견석왕자의 태실이다.⁸ 1979년에 경주 이씨(慶州李氏) 문중(門中)에서 제단(祭壇)을 세우기 위하여 굴착작업을 하던 중 사방 20cm 정도의 석함(石函)이 발견되고, 여기에 대명(大明) 23년 4월 7일의 태(胎)라고 음각(陰刻)한 석판(石板)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석판(石板)의 행방은 지금 알 수 없다고 한다[평해군지에 “辛來峰在郡西五里許 頂有安胎 有小碣刻曰王子聖石門只氏胎室 成化二十三年四月初七日午時立云而今則無”라 쓰여있고 성화(成化) 23년은 명나라 헌종 성화(憲宗成化) 23년이고 조선조 성종 18년, 1487년이다.].

제5절 오곡1리(梧谷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서쪽으로 멀리 한티재(大峴)의 산줄기가 남으로 뻗어 삼성봉(三聖峰)을 이루고, 또 동쪽으로 뻗은 천현산록(天峴山麓)에는 수진사(修真寺)가 있다. 그 아래쪽은 이 마을의 북쪽으로 오곡2리(梧谷二里) 비량리(飛良里)와 비량들(平野)이 있으며, 삼성산(三聖山) 지맥(支脈)이 동으로 뻗어 마을 앞산이 되고 노송이 울창하다. 동쪽은 대숲밭 마을과 일출봉(日出峰)이 있으며 동서계곡(東西溪谷)으로 길게 형성된 남향(南向)의 마을이다. 마을회관은 2017년에 개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오곡마을에 2012년에 조성된 오곡보건진료소가 있다.

2. 마을의 역사

평해군 하리면(下里面) 오곡리(梧谷里)로 있다가, 평해군 북하리면(北下里面) 오곡리(梧谷里)로 되었다. 1914년에 행정구역개편에 의한 군(郡)의 통폐합으로 울진군 평해면 오곡리

8. 심현용 2001, 「울진지역 태실에 관한 시고」 『고문화』5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梧谷里)로 되었다. 1944년은 행정구역 리(里) 개편(改編)으로 오곡리가 1리(一里), 2리(二里)로 분구(分區)되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오곡1리로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54세대가 거주하며 평해 황씨(平海黃氏), 평해 손씨(平海孫氏), 청주 한씨(淸州韓氏) 등이 주종을 이루며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特徵)

음력 9월 9일에 동제(洞祭)를 지낸다. 마을 입구에 모란꽃이라는 작은 연못이 있으며, 수령 100여 년을 넘는 고목(古木)이 숲을 이루고 있어 최근에 울진군이 공원을 조성했다.

5. 전설

1) 대숲

이 마을의 자연부락으로 마을 뒷산에 대밭(竹林)이 있었다 하여 대숲이라 부르고 있다.

2) 옷골[梧谷; 옷질]

신라 중엽 마을을 개척할 때 계곡에 오동나무가 많이 있다 하여 옷골(梧谷)이라 하였다.

3) 황연(黃衍) 효자각(孝子閣)

조선 후기 평해 출신의 효자 황연을 기리는 정려이다. 황응문(黃應文)의 아들 황연은 9세 때에 어머니의 병이 위급하여 자기의 손가락을 끊어 그 피를 어머니의 입에 넣어 쾌유하게 하였다고 한다. 1693년(숙종 19)에 장려(旌閭)되었다. 비각은 단칸의 우진각 기와집으로 사면은 모두 가는 살을 세워 처리했다. 호패형의 비 전면에는 ‘효자증조봉대부동몽교관황공연 지려(孝子贈朝奉大夫童蒙教官黃公衍之閭)’라고 쓰여 있다.